

# 의정소식

(우)26384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http://council.wonju.go.kr> TEL 033)737-5023 FAX 033)737-5025

## 제 33 호

## 제163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 발행일 | 2013년 7월 1일
- 발행인 | 원주시의회의장
- 편집 | 의회운영위원회

### 지면안내

- |    |  |                |
|----|--|----------------|
| 02 |  | 의회활동           |
| 03 |  | 5분 자유발언        |
| 08 |  | 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
| 09 |  | 5분 자유발언        |
| 12 |  | 의회활동           |
| 16 |  | 원주시의회 인터넷방송 안내 |



원주시의회

**지**난 6월 10일 개회한 제163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2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되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원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심의·의결한 것을 비롯하여 원주시의회 보행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원안의결하고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수정의결 하였다. 또한,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대신 별도의 위원회 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원안의결 하였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223건에 대해 시정 또는 처리요구를 하였으며,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원주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병선·박춘자 의원이, 제4차 본회의에서는 박호빈·용정순·신수연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제시와 정책제안을 하였다.

## 시정질문 및 답변 요지



나복용 의원

**원** 주시의회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원주시로 재배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였다.

나복용 의원이 발의한 결의문에서 원주시의원들은 그동안 원주시의회와 원주시민은 2018년도 동계올림픽이 평창으로 확정될 때까지 국가와 강원도 발전을 위해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강릉시에 양보하는 등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스피드스케이팅·피겨·쇼트트랙·아이스하키·컬링 경기장이 강릉시에 집중되어 경기장 편중으로 인한 교통·숙박·관람객 유치 문제뿐만 아니라 대회 이후 경기장 운영·관리를 위한 과도한 재정부담 및 아이스하키장의 원주이전비용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경기장으로 인한 지역 분열을 조기에 종식함은 물론 균형·환경·경제 올림픽을 추진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원주시로 재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여주-원주 복선전철 조속 추진 건의



김홍열 의원

**원** 주시의회는 원주시와 강원도의 최대 숙원 사업인 여주-원주간 복선전철 사업을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비서실,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였다.

김홍열 의원이 발의한 건의문에서 원주시의원들은 원주시가 당면한 주요사업인 기업도시·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가장 시급한 사항임을 강조하고, 성남-여주선에 이어 여주-원주선이 연결될 경우 급행 철도망인 원주-강릉 철도와 연계되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부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산악지역이 대부분인 강원도는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B/C분석 이외의 요인들을 적극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33만 원주시민과 150만 강원도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의 동반 성장을 위하여 원주-여주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복선으로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 사업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 5분 자유발언

류 인 출 의원

## 볼라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가 오히려 보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고 있으며, 특히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의 경우 자전거 통행에 장애물이 되기도 함은 물론 이로 인해 다치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음.



부러지고 넘어진 볼라드, 폐타이어가 씌워진 볼라드 및 기준 미달의 볼라드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불필요한 곳에 설치하거나 적정 이상의 과도한 설치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자전거도로 경계를 위해 설치한 볼라드는 차량 사고를 유발하기도 함. 따라서 횡단보도 및 보도 진입로 구간의 턱 낮추기 사업은 전체 구간이 아닌 일부만 낮추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볼라드 설치가 필요한 경우라도 최소 수량만 설치하는 한편, 현재 설치된 볼라드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를 지양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해야 함.

김 흥 열 의원

## 양양~제주 항공노선 개설 신중히 결정해야

1997년 운항을 개시한 원주공항은 탑승객 감소로 인해 2002년 운항이 중단되었다가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손실부담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다시 개시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수학여행단 지원 및 운항시간 변경 등 다양한 원주공항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여 평균 탑승률 71.6%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음.



그러나 최근 강원도에서 양양공항 활성화를 명분으로 양양~제주 노선 개설을 검토하고 있는바, 현재 원주공항 탑승객의 25% 이상이 영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양양~제주 노선이 신설될 경우 원주공항의 탑승객이 20% 이상 감소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로 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임.

그동안 원주시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편입되어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에 의거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정상 추진으로 인구 50만 도시로 성장하게 되면 원주공항은 중부내륙의 중심 공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므로 강원도는 양양~제주 노선 개설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박 호 빙 의원****문화의 향기가 나는 원주로의 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원주는 강원감영문화제를 필두로 크고 작은 여러 축제가 있었으나 대부분 시민과의 소통부족으로 콘텐츠 부재 및 낭비성 축제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도 타 지역 축제에 필적할 만한 성공적인 축제가 없는 상황임. 축제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시민에게 달려있으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을 이루어야 성공한 축제라고 할 수 있음.

지금은 문화가 산업이 되는 시대로 원주 역시 치악산 평 설화, 임윤지당, 운곡 원천석 선생 등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원주민의 자산을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문화도시로 발전해가야 할 시기임.

이제 원주는 가능성 있는 문화와 예술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때가 되었음. 특히 지역 문화예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핵심 인적역량 양성이 시급하며,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위해서는 인적네트워크 및 문화 인프라가 가장 필요함. 또한, 지역축제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전문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인적네트워크를 지닌 외부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축제위원회가 조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원주지역의 축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기를 기대함.

**용 정 순 의원****원주~여주 수도권 전철 복선 추진과 관련하여**

판교~여주간 전철을 원주까지 연장하는 원주~여주간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이 새 정부 들어 무산될 위기에 빠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 사업은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되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 이전에 완공되어야 함.

단선으로 우선 추진하고 나중에 복선화하자는 것은 원주시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복선을 전제로 한 단선사업이 복선으로 전환된 사례가 없음은 물론 10년 전부터 국내 철도사업은 복선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복선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지정하여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함.

여주~원주간 수도권 전철 연장사업은 강원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원주~강릉간 복선전철과 연결되어야 동계올림픽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만큼, 사업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인근 시군과 협력하는 등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발휘하여 새 정부의 연내 중점 추진 과제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함.

## 전 병 선 의원

## 임대아파트 문제 해결해야

'주거의 권리'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최근 사회적 분위기는 아파트 위주의 자가 소유가 확대되면서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상태임.

현재 원주시 관설동 소재 모 아파트에서는 자금이 부족하여 분양전환을 하지 못한 채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이 임대 연장 재계약 거부 및 임대사업자의 높은 임대보증금 요구와 월세 인상 때문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임.

원주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신탁이 임차인과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아파트 매각 시 현 임차인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나 주민들의 불안감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만큼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함.



## 박 춘 자 의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공간에 대한 효율적 대책방안

1990년 이후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다문화가정이 국내 인구의 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 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은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로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족 문제는 가족복지 차원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함.

우리 시에서는 2004년부터 명륜사회복지관에서 시작한 한국어교실 등을 바탕으로 각종 우수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명륜사회복지관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활용 공간이 매우 협소한 관계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설의 적정 분포 등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에 설치해야 하며, 건강가정지원센터 역시 지역주민의 접근성 등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센터 이전 추진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운영공간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임.



**황 보 경 의원****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 재검토해야**

문막읍 주민들의 재산과 원주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원주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재검토해야 함.

우선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또한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즉각 공개해야 하며, 당초 계획과 달리 1,2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열병합 발전소 건립이 추가되는 등 사업 내용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었으므로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함.

또한, 폐목재(WCF)와 폐플라스틱(RPF)을 연료로 사용하여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열병합 발전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립되어서는 안 되며, 원주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환경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기 위하여 시의회, 환경단체, 시민단체, 교수 등 환경전문가, 지역주민과 원주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 발전소 범시민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이 재 용 의원****겨울철 제설작업 후 도로관리 방안**

제설작업 시 사용하는 염화칼슘은 가격이 저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차량 운행 중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포트홀(Pot Hole)’ 현상뿐만 아니라 차체 부식으로 인한 차량 수명 단축, 호흡기 질환, 수질 오염 및 가로수 고사 등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염화칼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대체 제설방법을 찾아야 하나 현재로선 마땅한 대안이 없는 실정으로 우선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염화칼슘 사용 후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체계적인 물청소 및 분진청소,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지역 청소, 시민 요청 시 ‘찻아가는 물청소’, 기상상황에 따른 청소시스템 구축 등과 함께, 보행도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물청소전담반을 구성하여 주요 간선 도로변 및 가로시설물 등에 대한 세척작업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골목길, 학교운동장 등에 물을 뿌려 농도를 낮추는 등의 시책을 제안하는 바임.

이 병 규 의원

## 주민기피시설 입지기준 마련해야



최근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주민기피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개발사업자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원주시는 단편적 분쟁해결이 아닌 제도개선 목적의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환경오염, 주민건강 침해 및 재산 가치 하락 등 주민기피시설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의 관리를 위한 합리적 기준과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함.

원주시는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외부전문가, 유관기관, 사업시행자,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내실 있는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주민기피시설 입지 시 주민,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 등 갈등 주체 간 예상되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해결위원회도 구성해야 함.

주민기피시설이 생활에 필수적이고 공익성을 갖는 것은 분명하나 그로 인해 많은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및 계획기준 등은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조정기간을 단축하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실제 주민기피시설 입지로 인해 현장에서 겪었던 갈등사례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야 함.

이 상 현 의원

## 원주 옻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 옻산업 특구 지정,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 원주옻칠공예대전 개최, 원주옻문화센터 개관, 원주 옻산업 명품화 사업 등 원주시는 '옻'의 고장임에는 분명하나 정작 원주옻을 활용한 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옻산업 육성과 홍보를 위해 건립한 옻칠기공예관의 경우 치악산 국립공원 길목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의 소극적인 운영 탓에 지난해 방문객이 5,497명에 불과하였으며, 원주옻 명품화 사업의 지역혁신 역량강화사업으로 운영한 '옻나무 재배농가 교육' 역시 콘텐츠가 부실하여 10차례에 걸친 교육에 고작 100여 명만이 참석하는 등 호응을 얻지 못하였음.

원주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옻을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그동안 옻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자랑스러운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옻산업을 총괄하는 부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김 명 숙 의원

## 성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최근 우리 지역에서 초등학생 3명이 지적장애 여성에게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 있는 가운데 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지적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 비율이 높은 실정임.

성폭력 예방교육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 10대에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은 지적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함은 물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지적장애인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함.

최근 가해 행위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보면 감시와 억압만으로는 성폭력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가족 치유 프로그램과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모든 성 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수는 없으므로 사회 전체를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교정을 함께 진행해야 함.

## 제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 16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월 28일 개회하여 31일까지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원안의결하고 「원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다.

또한, 잣은 폭설과 한파로 얼어붙은 골목길 등 보도에 대한 제설 및 제빙 작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조인식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약자 등 주민을 위한 제설·제빙 작업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전체의원 명의로 채택하여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발송하였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병선·권영익 의원,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홍열·박호빈·이상현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제시와 정책제안을 하였다.

# 사회적 약자 등 주민을 위한 제설·제빙 작업 개선 촉구



조인식 의원

**원**주시의회는 노인, 여성, 어린이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골목길 등 보도의 제설 및 제빙에 대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에 전달하였다.

조인식 의원이 발의한 건의문에서 원주시의원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제정하여 내 집, 내 점포 앞의 눈과 얼음을 치우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건물주의 고령화 및 부재 등으로 인해 적기에 조속한 제설·제빙 작업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으며, 특히 골목길 등 보도의 경우 대부분 눈과 얼음이 적기에 제거되지 않아 노약자, 어린이 및 여성들의 통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골절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주민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국민안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 약자가 주로 통행하는 장소는 대학생 및 일용근로자들을 투입하여 조기에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범정부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제설·제빙 작업에 사용되는 염화칼슘 및 소금으로 인해 환경오염, 가로수 고사 및 포트홀(Pot Hole)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염화칼슘 및 소금 등과 같은 제설제 '폐기물관리법' 상 특정 폐기물로 지정하고 살포 후 용해된 눈과 함께 즉시 수거할 수 있도록 '자연대책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5분 자유발언

전병선 의원

원주따뚜 야외공연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지난 2000년 세계군악축제로 시작된 원주따뚜가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 축제로 자리 잡지 못한 채 소모성 축제 논란 등으로 폐지됨에 따라 군악축제 전용공연장 용도로 건립한 원주따뚜 야외공연장의 활용과 관련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현재 일반에게 공연장을 개방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이용현황을 보면 연 평균 21건, 90일에 그치고 있으며 사용료 수입금액 역시 연 평균 230만 원에 불과한 반면, 금년도 따뚜 공연장 운영을 위한 관련 예산은 경영관리비 9천 6백만 원 및 시설유지보수비 1억 8천 3백만 원 등 총 2억 8천만 원이 배정되어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예산낭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불필요한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제안을 통한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함.

## 권 영 익 의원

## 캠프롱기지 반환에 따른 부지 활용방안 제안

1951년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그동안 원주시 북부권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었던 캠프롱기지 주한미군공여지가 52년 만에 원주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됨에 따라 반환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함.



첫째, 현재 기본계획에 의하면 빨라야 2018년 이후에나 공여지 내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지금 당장 사용해도 손색이 없는 시설을 최소 5년 이상 방치하는 것은 공여지를 반환받는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방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체육관 및 야구장 등 체육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과 산책로 등을 사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둘째, 도시규모에 걸맞은 도시공원의 조성은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선용 측면에서 필수 타당한 것이나 개발방향이 단지 시민 문화체육공원으로 국한된다면 반환 부지의 개발로 인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며 오랫동안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온 북부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주민공청회 등 다각적인 여론 수렴 및 구체적인 용역 수행을 통하여 주한미군공여지 개발지역은 물론 기존 북부권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김 홍 열 의원

## 화훼특화관광단지 일괄 보상해야



문막읍 궁촌리 일대에 추진 중인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주시는 지난 1월 18일 의원 간담회를 통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괄 보상하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후 주민설명회에서는 분할 보상하겠다고 하는 등 기존 입장을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의 규모, 자금조달 및 보상 방법, 그리고 참여기업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주민들이 사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

우드칩과 플라스틱을 연료로 하는 열 공급시설 역시 관련 현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의문만 점점 더해지고 있으며, 또한 당초 전문가가 제시한 최저 한선인 75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27억 원으로 시작하는 특수목적법인도 큰 규모의 기업은 뒤로 빠진 채 자본금 4억 원의 소규모 회사가 전면에 나서 과연 수천 억 원의 사업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임.

따라서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일괄보상하고 농지를 잊게 되는 농민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한편,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람.

## 박 호빈 의원

### 자살방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현재 10만 명 당 31.7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2.9명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상태로, 국내에서도 강원도가 37.7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가운데 원주 역시 40.9명으로 매우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지역 주민은 120명이 넘고, 자살시도와 그 주변 가족 및 이웃들에게 파급되는 영향까지 감안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자살 위험도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자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살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에 의한 사망사고가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바라봐야 하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라는 인식하에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요구됨.

따라서 민관 협력 하에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 생명존중을 위한 문화적 환경조성,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강화 및 자살 위험군에 대한 위기 개입 서비스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이상현 의원

### 폐기물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원주시 북동쪽에 위치한 소초면은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토토미, 치악산 복숭아·배·밤, 찰옥수수 및 조엄 밤고구마의 주요 생산지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고장임.

그동안 주민들은 국가의 군용시설 운영 및 환경보호 정책을 존중하여 비행기 소음 피해는 물론 치악산 국립공원, 군사보호시설 및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각종 개발 규제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묵묵히 생활해 왔으나, 최근 둔둔리와 평장리에 각각 의료폐기물 처리장과 건설폐기물 처리장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바 이는 쾌적한 주거 환경 및 주변 환경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 생계를 위한 소득 원인 친환경 농업의 브랜드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임.

특히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 및 건설폐기물 파쇄로 인한 분진과 미세먼지 등은 주민생활 및 주변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대한 전체 주민의 뜻을 반영하여 관련 사안을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임.

## 원주기업도시 현장방문



**원**주시의회(의장 채병두)는 지난 1월 11일 원주기업도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재 사업 진행상황 등을 청취하고 기업도시 조성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였다.

## 건설도시위원회 타 지자체 선진시설 비교 견학



질개선사업소를 방문한 의원들은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된 하수처리장의 운영 방식과 태화강 및 울산만 등 방류수역의 수질환경 개선 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며 관련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였다.

또한, 수돗물 생산 및 급수 계통 소독처리 시스템과 소독처리 실시간 자동화 감시 제어장치 등을 갖춘 회야 정수사업소는 수도공급시설 우수사례로 꼽히는 곳으로, 특히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생태탐방로를 개방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의원들은 물론 동행한 집행부 담당공무원도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 원주시 4대 주요 현안사업 간담회



**원**주시의회(의장 채병두)는 1월 18일 원주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원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및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시 4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협의를 위해 집행기관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원주

교도소 이전사업 및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등 현재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의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의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원주시는 문막읍 궁촌리 일대에 추진 중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9년까지 숙박시설 등을 갖춘 테마파크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06년부터 부론면 노림리 일원에서 추진돼 왔으나 지난해 말 (주)경안전선의 사업 포기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일단 사업시행자를 원주시로 변경한 후 민간시행자 공모를 통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무실동 교도소 이전사업의 경우 원주시 재정형편상 자체 추진이 어려운 만큼 국가재정사업이나 민자 유치로 추진할 예정이며, 장사시설 설치사업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재단법인(천상세계)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금년 안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주시의회 의원들은 총 2,4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의 자본금이 30억 원에 불과하여 실제 사업추진 능력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여기업 대부분이 열병합 발전소와 연관된 회사들로 정작 중요한 생산단지 및 테마파크 조성 관련 전문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RPF(Refuse Plastic Fuel)를 원료로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소의 환경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SPC 운영 방향에 대한 원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였다.

또한, 부론일반산업단지의 경우 공업용수 부족 및 IC신설 문제 등을 거론하며, 그동안 수익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제3의 민간기업 참여 역시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2005년부터 추진해온 교도소 이전사업을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도 사전 협의 없이 취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행정의 연속성 및 신뢰성을 위해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현재 화장장 이전은 매우 시급한 문제인 만큼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업체가 주민들이 참여한 법인이라 할지라도 사업수행능력 및 시행자 지정요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방향을 조속히 결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주시의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였다.

## 원주시의회 설 맞이 위문활동

**채** 병두 의장을 비롯한 원주시의회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 및 전·의경 부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또한, (사)원주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을 찾은 의원들은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연탄' 3,000장을 기탁하였다.



## 산업경제위원회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유석연)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관내 의료기기업체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건립현장 등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미비한 점 등을 사전에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및 해당 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의료기기 생산업체를 방문한 의원들은 제품 생산 공정을 견학한 후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 경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원주지역 의료기기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건립현장 및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문막에 위치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에서는 농기계 보관 및 수급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을 찾아 친환경 생명농업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원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코레일과 함께하는 원주시티투어' 사업 관련 시설 등을 시찰하였다.

##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본격활동 돌입



**원**주시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빈)가 원주시 관광산업 관련 부서 업무보고 및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청정자연을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내어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구성된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원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원주시 관광산업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관광시설 조성현황 및 사업 예정지 시찰을 위해 간현관광지, 흥원창 지역 및 섬강생태공원 등을 방문하였다.

관광특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연계된 관광활성화 방안을 구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현재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현장방문에서 특위 위원들은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인한 폐철로 활용방안 및 섬강생태공원 내 캠핑장 조성사업 등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을 마친 원주시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관광산업 관련 단체 및 집행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광산업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타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운영성과를 살펴보고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할 계획이다.

## 행정복지위원회 칠봉휴양관 신축 부지 현장방문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3월 6일 섬강매향골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칠봉휴양관 신축 부지를 현장방문 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원주시가 호저면 산현리 칠봉체육공원 옆 4,918m<sup>2</sup> 부지에 종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 식당 및 회의실 등을 갖춘 지상 2층 규모의 휴양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방문에 나선 의원들은 사업 예정지를 둘러보고 사업추진 현황 및 관리운영 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 제29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 참관

**원**주시의회(의장 채병두)는 지난 3월 22일 서울 코엑스전시장에서 개최된 제29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를 참관하였다. 전시장을 찾은 시의원들은 의료기기분야의 최신기술과 국제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는 한편, 전시회에 참가한 원주지역 의료기기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

의정활동 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원주시의회 인터넷 방송이 운영되고 있다.

의회 본회의에 대하여는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각 상임위원회에 대하여는 녹화방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대하여는 의정뉴스를 제작 원주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wonju.go.kr>)에 게재하여 시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의회 작은도서관 이용안내

- **기간** : 연중 지속 실시
- **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장소** : 시의회청사(1층)
- **열람자료**
  - 의회 회의록
  - 백석, 연감
  - 일반도서

###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정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의회 방청 및 참관** 원주시의회의 본회의 진행과정은 모든 시민에게 공개됩니다.

#### ▶ 방청을 원하시면

- 개인 : 신분증을 가지고 의회사무국에 오셔서 방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체 : 의회를 방문하여 대표자가 방청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 방청인 준수사항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의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면 안됩니다.
- 기타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의정소식** 원주시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상세하게 알리는 의회소식지로서 분기별 발행하여 각급 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 **회의록**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 **의정백서** 짹수년도, 2년 주기로 임기동안의 활동사항을 책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